

CEO Report >>>>>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2019. 7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Executive Summary

세계 경기 둔화와 함께 투자 및 수출의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하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주요 기관들이 기존에 예측했던 2.2~2.4%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시장금리 하락세와 환율 상승세는 2019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주가는 상반기 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실적이 기존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을 고려하여, 2019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증가율을 기존 -0.8%에서 -0.7%(생명보험 -3.4%, 손해보험 2.6%)로 수정]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 둔화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경기부진,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인해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인하,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부담 확대, 주가 변동성 확대에 의한 변액저축성보험 위축 등으로 1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퇴직연금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임금상승률 확대 등으로 5.0% 증가가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2019년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정비요금 인상, 손해율 상승,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로 전년도 역성장(-0.8%)에서 벗어나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은 낮은 공시이율로 인한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성장세도 둔화되어 2.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금부문의 경우 개인연금 감소세가 확대되고 퇴직연금도 제한적인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2.0%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은 신용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 경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 2018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2019년 1/4분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7년보다 0.2%p 하락한 3.6%를 기록함¹⁾
-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0.6%p 상승한 2.9%를 기록하였고, 일본과 중국,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1.1%p, 0.4%p, 0.5%p 하락한 0.8%, 6.4%, 1.9%를 기록함

▶ 표 I-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 ¹⁾	3.5	3.6	3.4	3.4	3.8	-	-	-	-	3.6	-
선진국 ¹⁾	1.4	2.1	2.3	1.7	2.4	2.2		2.0		2.2	-
신흥국 ¹⁾	5.1	4.7	4.3	4.6	4.8	5.2		4.3		4.5	-
미국 ²⁾	1.7	2.6	2.9	1.5	2.3	2.2	4.2	3.4	2.2	2.9	3.2
중국 ³⁾	7.8	7.3	6.9	6.7	6.8	1.5	1.7	1.6	1.5	6.4	1.4
유로지역 ⁴⁾	-0.2	1.4	2.1	2.0	2.4	1.5	1.7	0.6	0.9	1.9	1.6
일본 ⁵⁾	2.0	0.4	1.2	0.6	1.9	-0.4	2.3	-2.6	1.8	0.8	2.2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3)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나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9.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9. 4)

3) 중국 국가통계국(2019. 4)

4) Eurostat(2019. 5)

5) 일본 내각부(2019. 6)

1) IMF(2019. 4), "World Economic Outlook"

■ 주요국 경기 둔화와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등에 의한 불확실성 확대에 인하여 국제기구들은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국제기구들은 유로지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 감소와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와 교역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IMF는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로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3%로 0.4%p 하향 조정함²⁾
- World Bank는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0.1%p 하향 조정한 2.9%로, OECD는 기존 3.5%에서 0.3%p 하향 조정한 3.2%로 전망함

▶ 표 I-2 전망기관별 2019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IMF	2018.10	3.7	2.1	4.7	2.5	1.9	0.9	6.2
	2019. 4	3.3	1.8	4.4	2.3	1.3	1.0	6.3
OECD	2018.11	3.5	-	-	2.7	1.8	1.0	6.3
	2019. 5	3.2	-	-	2.8	1.2	0.7	6.2
World Bank ¹⁾	2018. 6	3.0	2.0	4.7	2.5	1.7	0.8	6.3
	2019. 1	2.9	2.0	4.2	2.5	1.6	0.9	6.2

주: 1) 2010년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가중치로 평균한 것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OECD Economic Outlook";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 국내경제

■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투자 감소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2.7%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9년 1/4분기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짐

-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설비·건설투자 감소세 확대에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7년에 비해 0.4%p 하락함
- 2019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투자 이외에 수출과 소비도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데 그침
 - 반도체 업황 부진, 공사물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고 있음

²⁾ IMF(2019. 4), "World Economic Outlook"

▶ 표 I-3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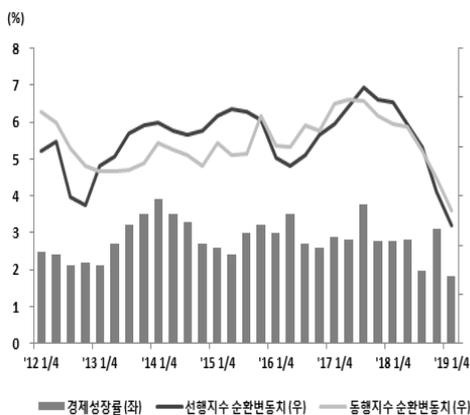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3.1	2.8	2.8	2.0	3.1	2.7	1.8
- 민간소비	2.6	3.5	2.9	2.5	2.5	2.8	1.9
- 설비투자	14.6	7.3	-3.0	-7.4	-2.7	-1.6	-16.1
- 건설투자	7.6	1.8	-1.5	-8.9	-5.9	-4.0	-7.4
- 지식생산물투자	3.0	3.5	2.2	1.6	0.5	1.9	1.8
- 재화수출	1.9	1.6	4.8	3.1	7.2	4.2	0.2
- 재화수입	7.0	4.2	2.0	-1.8	2.5	1.7	-5.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투자와 수출의 위축과 더불어 최근 순환변동치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실물경제의 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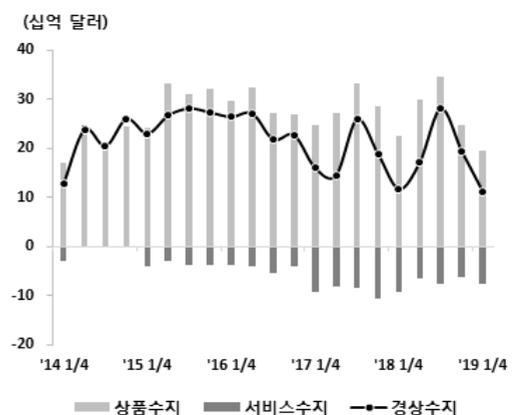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3/4분기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폭이 확대됨
 - 향후 부진한 경기 흐름을 반전하기 위한 총수요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그림 I-1 경제성장률과 순환변동치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2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18년에 비해 0.3~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한국은행과 KDI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2%, 2.4%로 예측함
 - 한국은행은 7월에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4월)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함
- 두 기관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나,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심화되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부진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임

▶ 표 I-4 국내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F) ¹⁾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GDP	3.1	2.7	2.2	2.4
민간소비	2.6	2.8	2.3	2.2
설비투자	14.6	-1.6	-5.5	-4.8
건설투자	7.6	-4	-3.3	-4.3
지식생산물투자	3.0	1.9	2.6	2.6
상품수출	3.8	4.0	0.6	1.1
상품수입	7.4	1.9	-0.5	-1.6
실업률	3.7	3.8	3.9	3.9
소비자물가	1.9	1.5	0.7	0.7
경상수지(억 달러)	752	764	590	582
상품수지(억 달러)	1,136	1,119	875	859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억 달러)	-384	-355	-285	-277

주: 1) 2019(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19. 7),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19.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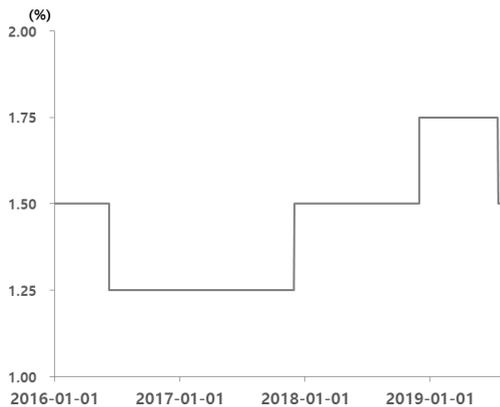
3. 국내금융시장

가. 금리

■ 수출·투자 부진 등에 의한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7월 18일 기준금리가 기존 1.7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연내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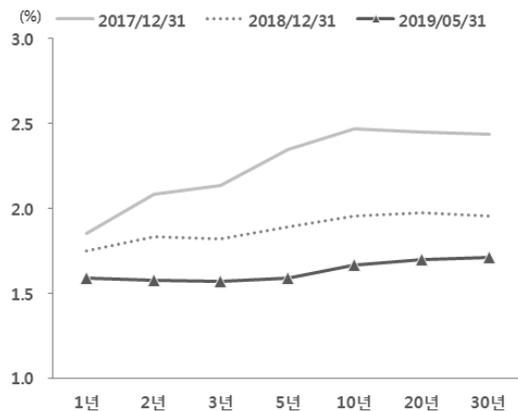
-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의한 금리인하³⁾ 기조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압력이 약하다는 판단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함
-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그림 I-3 한국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I-4 한국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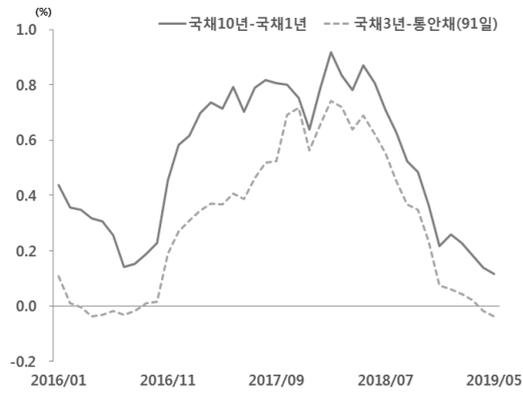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장기금리 하락에 의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국채 3년물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여 국채 1년물 금리를 하회함
- 신용스프레드(회사채-국채)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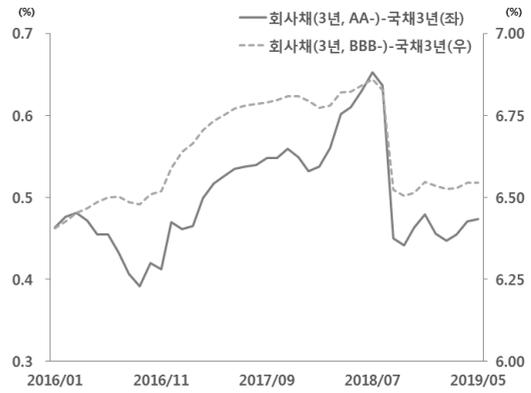
3) 인도 6.5% → 6.25%(2월) → 6%(4월) → 5.75%(6월 예정), 말레이시아 3.25% → 3%(5월), 뉴질랜드 1.75% → 1.5%(5월), 필리핀 4.75% → 4%, 호주 1.5% → 1.25%(6월) 기준금리를 인하함

▶ **그림 I-5 장단기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 **그림 I-6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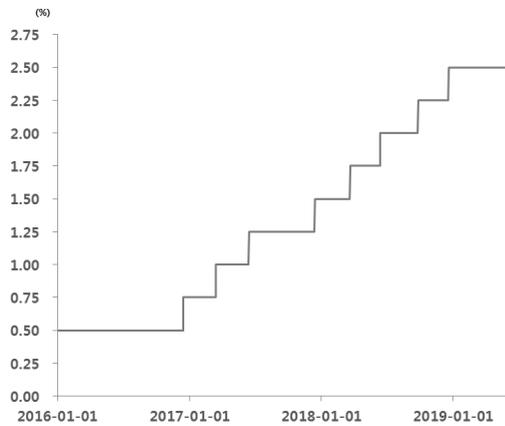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인하여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우리나라 국채와의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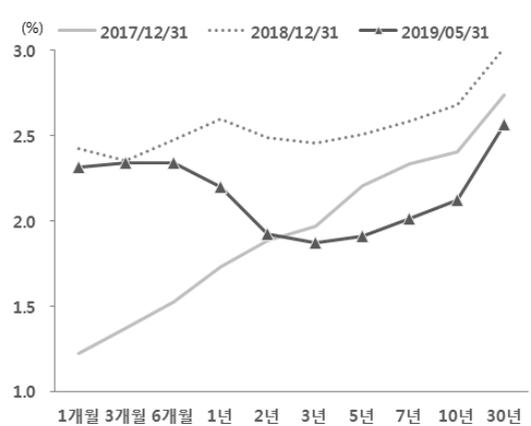
- 미국 연준은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에 인하여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있음
-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채 10년물 금리차는 2018년 말 0.73%p에서 2019년 5월 말 0.46%p로 축소됨

▶ **그림 I-7 미국 기준금리 상단**



자료: Bloomberg

▶ **그림 I-8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9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는 2.70%로, 우리나라 국채(10년)와 국채(3년)의 금리는 각각 2.06%, 1.82%로 전망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가 1~5월 평균 금리 수준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하반기 우리나라 국채(10년)금리는 1~5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국채(3년) 금리는 1~5월 평균 금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표 I-5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2.57	2.70	1.93	2.06	2.18	1.82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에서 6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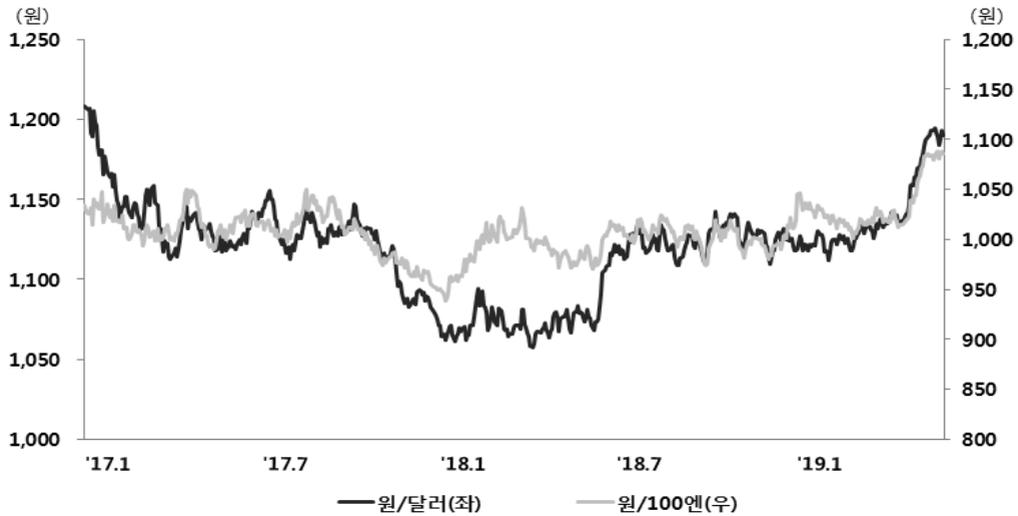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2019년 1~5월 평균 1,140원을 기록함
- 이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및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에 따른 안전통화 선호 현상 등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원/엔 환율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9년 1~5월 평균 100엔당 1,033원을 기록함

-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경제지표의 부진과 낮은 소비자물가⁴⁾ 수준을 고려하여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한 점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줌

4) 일본 소비자물가(YoY,%)는 '18. 11월 말 0.9 → 12월 말 0.3 → '19. 1월 말 0.2로 하락세를 지속함

▶ **그림 I-9**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9년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의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함

▶ **표 I-6**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138.11	1,175.0	110.42	109.0	1.13	1.14
JP Morgan		1,177.5		113.0		1.15
Barclays		1,147.5		107.5		1.08
Citi Group		1,121.5		106.0		1.18
Morgan Stanley		1,155.0		108.5		1.15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으로 환율은 5월 중순~5월 말 기준 전망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다.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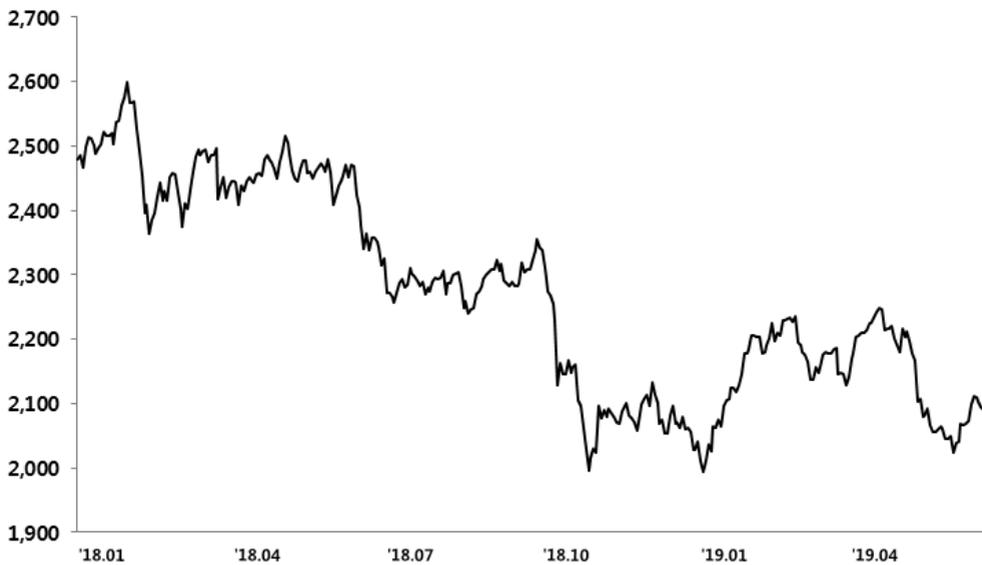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코스피(KOSPI)는 1,985~2,252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 1/4분기에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월 이후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둔화, 미·중 무역협상 결렬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하반기 주가는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임

- 만약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심화된다면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림 I-1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II 보험시장

1. 보험산업 총괄

- 2018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0.2%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시장의 정체와 공시이율 인하 등으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2.7% 감소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 확대와 자동차보험 역성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 증가에 그침

- 2019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종신보험 시장 정체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악화된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2019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7%로 소폭 조정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기존 -3.8%에서 -3.4%로 조정하였으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기존 2.7%에서 2.6%로 조정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세와 보장성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3.4% 감소가 전망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정비요금 상향 조정과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원수보험료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장기저축성보험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판매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표 II-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7		2018		2019(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 전망 증가율
생명보험	114.0	-4.9	110.8	-2.7	107.1	-3.4	-3.8
손해보험	88.3	4.5	91.1	3.1	93.4	2.6	2.7
전체	202.3	-1.0	201.9	-0.2	200.5	-0.7	-0.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개요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시장 위축과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시장 정체⁵⁾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침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 하락과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와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저축성보험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임금상승률 확대와 주식시장 하락세로 인한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함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 둔화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가 전망됨

- 최근 실적치를 고려하여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4%로 조정함
 - 퇴직연금을 제외한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4.9%가 될 것으로 예상됨(기존 전망치는 -5.0%임)

5)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종신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경기부진,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 인하,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부담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한 변액저축성보험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가 전망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⁶⁾ 및 임금상승률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2018년보다 8.2%p 하락할 것으로 보임

▶ 표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전체	1,198,112	2.2	1,139,735	-4.9	1,108,431	-2.7	1,070,913	-3.4	-3.8
(퇴직연금 제외)	1,030,861	-0.4	990,671	-3.9	939,706	-5.1	893,811	-4.9	-5.0
보장성 ²⁾	402,894	6.6	417,592	3.6	427,858	2.5	435,913	1.9	1.6
저축성 ³⁾	620,348	-4.5	565,430	-8.9	504,233	-10.8	450,274	-10.7	-10.6
일반저축성	442,573	-3.9	387,903	-12.4	335,669	-13.5	294,437	-12.3	-17.4
변액저축성	177,774	-5.9	177,526	-0.1	168,563	-5.0	155,836	-7.6	1.6
퇴직연금	167,252	22.1	149,064	-10.9	168,725	13.2	177,101	5.0	3.1
기타 ⁴⁾	7,619	-1.5	7,649	0.4	7,616	-0.4	7,624	0.1	-0.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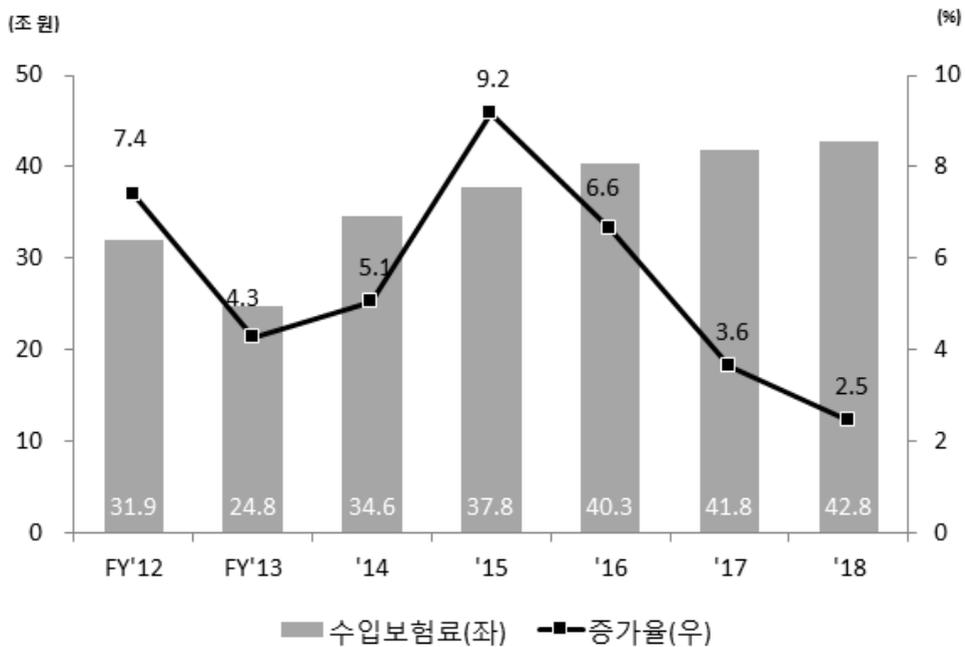
6) DB형 사외적립비율이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최소 기준을 의미하며, 기존에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 이상 적립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90% 이상 적립으로 확대됨

나. 보장성보험⁷⁾

■ 2018년 보장성보험⁸⁾ 수입보험료는 시장수요 한계, 경기부진에 따른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침

- 종신보험은 시장 정체로 신규 수요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부진의 여파로 해지도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의 기저효과도 나타남
- 다만, 생명보험회사들이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에 대비하여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보험 상품 위주로 변경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 심화,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확대가 신규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특히, 치매보험과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의 신규 판매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그림 II-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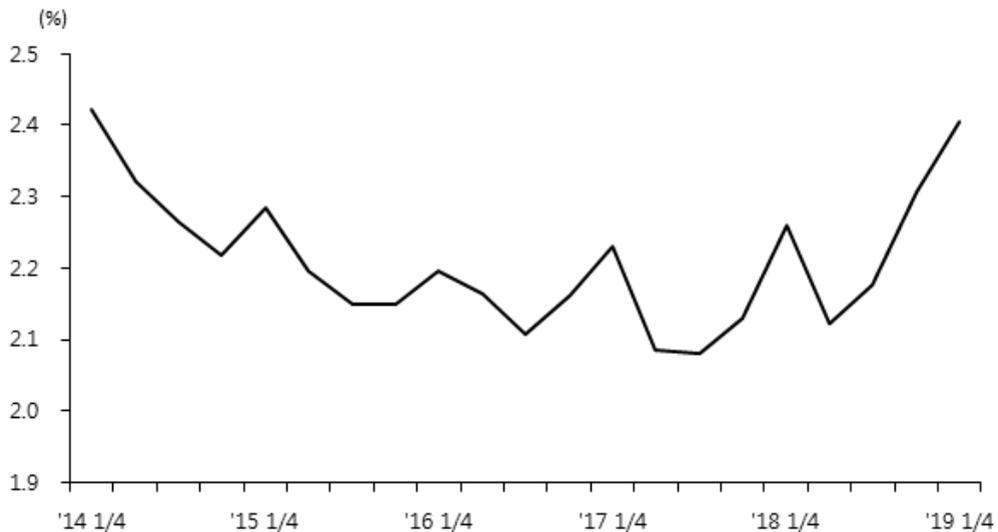
7)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구성됨

8) 2018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38.6%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및 종신보험 시장 정체로 인한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증가율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치를 1.6%에서 1.9%로 상향 조정함
- 사망보험은 경기부진, 시장의 성숙, 기대여명 상승,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4월 제9회 경험생명표 적용은 사망보험의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신규 판매 확대에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저금리와 회계제도 변화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최근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
- 건강보험은 치매보험, 장기간병보험, 치아보험 등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의 판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전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한편, 경기 둔화로 인해 보장성보험의 해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보장성보험 해지의 증가는 계속보험료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림 II-2** 보장성보험 해지율 추이(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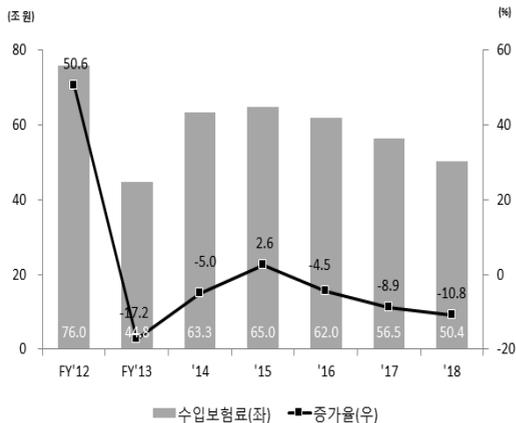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저축성보험⁹⁾

■ 2018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저축성보험 실적부진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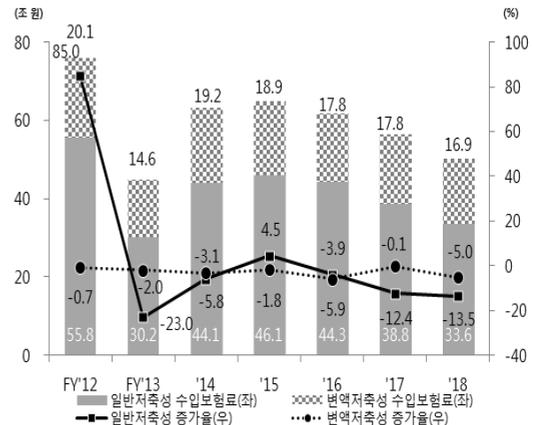
- 일반저축성보험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소극적 판매전략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13.5% 감소함
 -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 17에서 장기저축성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데다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 판매 유인이 떨어짐¹⁰⁾
- 변액저축성보험¹¹⁾ 수입보험료는 미·중 무역분쟁 및 국내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전년 대비 5.0% 감소함
 - 국내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4.89%를 기록함¹²⁾

▶ 그림 II-3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4 일반·변액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10) 김세중·김유미(2019. 6. 10),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KIRI Report』를 참조함

11)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12) 생명보험협회, “2018년 4분기 펀드유형별 통계”를 참조함

■ 2019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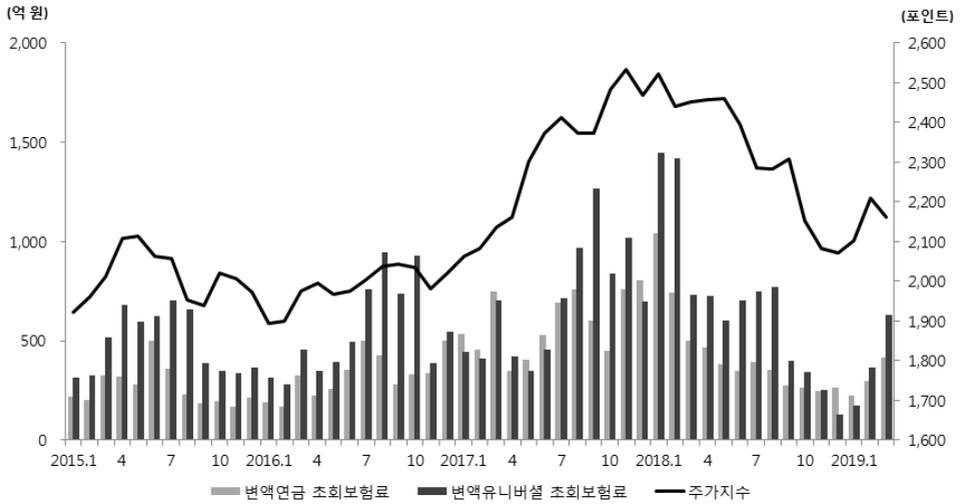
- 2019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기존 -10.6%에서 -10.7%로 조정함
 - 일반저축성보험의 경우 최근 실적치와 계속된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기존 예상보다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임
 - 반면,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기존 예상과 달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해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유지여력 감소, 자본부담 확대에 의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전략, 공시이율 하락, 신규 판매 수수료 부담 확대¹³⁾ 등으로 12.3% 감소가 예상됨
 - 공시이율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금리 장기화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신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연금보험 시장위축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적 수요는 존재함
-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해 전년 대비 7.6% 감소가 전망됨
 - 생명보험회사들의 다양한 보증옵션을 부가한 신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규 판매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다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 긍정적 요인에 의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경우 변액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가 확대될 것임

Box 1 주가와 변액저축성보험

- 2018년 변액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조 3,546억 원을 기록함
 - 미·중 무역분쟁 심화의 영향으로 평균 주가지수는 2018년 1월 2,520.9에서 2018년 12월 2,070.1까지 하락함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18년 주가 하락세는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로 이어졌음

¹³⁾ 2017년 1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에서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하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도 감소함을 의미함

▶ Box 그림 1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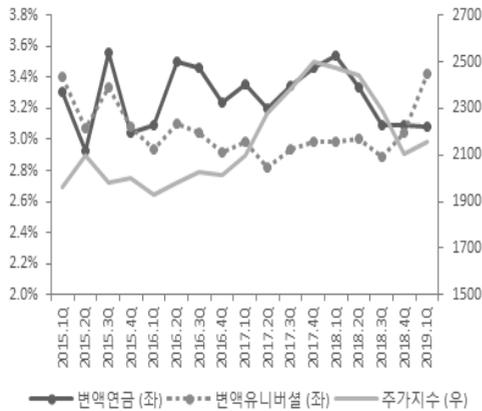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거래소

▣ 또한, 2019년 들어 주가가 다소 회복하자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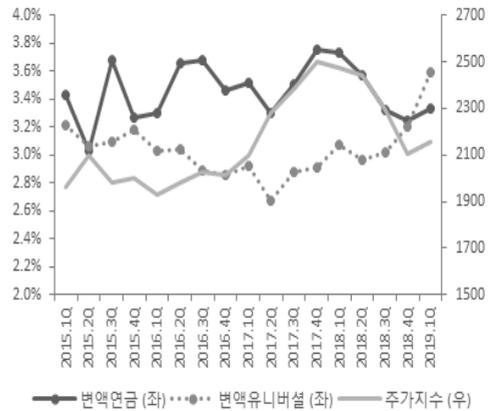
- 변액연금에 비해 변액유니버설 해지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Box 그림 2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건수) 및 주가지수(분기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Box 그림 3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금액) 및 주가지수(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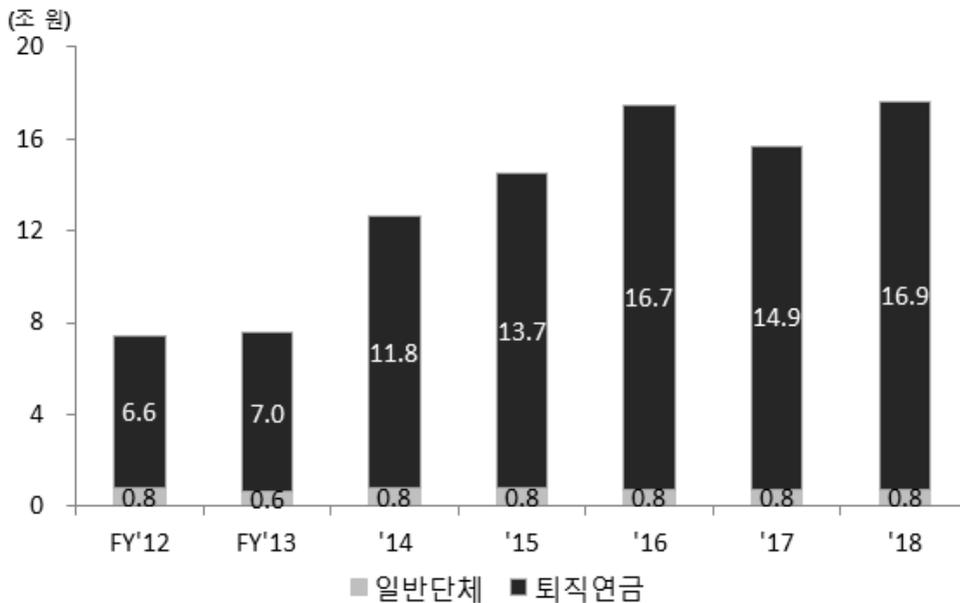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라. 퇴직연금

■ 2018년 퇴직연금¹⁴⁾은 임금상승률 상승과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함

- 명목임금상승률이 2016년 3.8%, 2017년 3.3%에서 2018년 5.3%로 상승하면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도 증가함¹⁵⁾
- 시장금리 상승 및 주가지수 하락으로 원리금보장형 적립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¹⁶⁾
- 한편,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한 기타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4% 감소함

▶ **그림 II-5** 단체보험(일반단체 및 퇴직연금¹⁾) 수입보험료



주: 1) 퇴직보험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4)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15.2%의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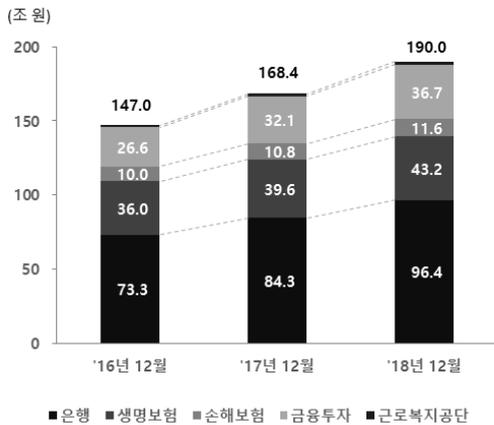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참조함

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8),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을 참조함

■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교해 보면, 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이 타 권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2018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262억 원으로 2017년 말 168조 4,348억 원에 비하여 12.8% 증가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각각 9.1%, 7.9%로 은행(14.3%), 금융투자(14.3%)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그림 II-6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 표 II-3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은행	15.6	15.1	14.3
생명보험	13.5	9.9	9.1
손해보험	18.2	8.0	7.9
금융투자	20.7	20.9	14.3
전체	16.3	14.6	12.8

자료: 금융감독원

■ 2019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임금상승률 상승 등으로 5.0% 증가가 전망됨

- 기존에 2019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3.1%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실적치와 임금상승률 증가를 고려하여 5.0%로 상향 조정함
- DB형 사외적립비율이 2019년부터 8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시장 확대가 예상됨
- 다만,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 증가와 타 금융권과의 실적배당형 DB형 상품 경쟁심화는 수입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앞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신용위험액과 시장 위험액을 요구자본에 단계적¹⁷⁾으로 반영하고 있음

17) 기존 35%에서 2019년 70%, 2020년 100% 반영으로 조정됨

3. 손해보험

가. 손해보험 개요

- 2018년 손해보험¹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성장 둔화와 자동차보험 역성장으로 인해 2017년보다 1.4%p 하락한 3.1%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장기상해·질병보험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3.0%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나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증가로 6.3% 늘어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퇴직연금 증가율 둔화와 개인연금 감소세 지속으로 인해 2017년보다 8.0%p 하락한 6.1%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¹⁹⁾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요율 인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세 지속 등으로 0.8% 감소함
-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와 연금부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는 최근 장기저축성 보험과 연금부문의 실적 둔화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치 2.7%에서 2.6%로 소폭 하향 조정함
 -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3%가 될 것임(기존 전망치는 2.1%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²⁰⁾, 손해율 상승,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로 전년 대비 1.5%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질병보험과 장기운전자·재물·통합 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낮은 공시이율로 인한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2.7% 증가가 전망됨

18)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19) 2018년 7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자동차 가격의 5%에서 3.5%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2019년 말까지 유효함

2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적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28,981원으로 2010년 21,553~24,252원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질적인 정비요금 인상은 2018년 4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6. 29),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강등 해소-적정 시간당 공임(25,383~34,385원) 공표-”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감소세가 확대되고 퇴직연금도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표 II-4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6		2017		2018		2019(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장기 손해 보험	합계	477,727	2.6	490,880	2.8	505,736	3.0	519,177	2.7	1.9
	상해·질병	271,537	11.7	296,606	9.2	326,348	10.0	352,922	8.1	6.0
	저축성	82,488	-21.2	63,263	-23.3	45,071	-28.8	32,049	-28.9	-28.6
	기타 ²⁾	123,703	4.8	131,011	5.9	134,317	2.5	134,206	-0.1	2.6
연금 부문	합계	118,160	13.7	134,764	14.1	142,940	6.1	145,740	2.0	4.4
	개인연금	38,768	-3.6	37,007	-4.5	35,163	-5.0	33,269	-5.4	-5.0
	퇴직연금 ³⁾	79,392	24.7	97,757	23.1	107,777	10.2	112,470	4.4	7.5
자동차	164,053	9.4	168,573	2.8	167,202	-0.8	169,739	1.5	0.5	
일반 손해 보험	합계	85,032	2.6	89,117	4.8	94,769	6.3	99,388	4.9	8.4
	화재	3,011	-1.0	2,965	-1.5	2,753	-7.2	2,579	-6.3	-0.6
	해상	6,080	-14.3	6,437	5.9	5,950	-7.6	5,677	-4.6	1.0
	보증	15,909	0.6	17,435	9.6	19,541	12.1	20,713	6.0	10.0
	특종 ⁴⁾	60,032	5.4	62,279	3.7	66,526	6.8	70,419	5.9	9.0
전체	844,972	5.3	883,334	4.5	910,647	3.1	934,044	2.6	2.7	
(퇴직연금 제외)	765,580	3.6	785,577	2.6	802,870	2.2	821,574	2.3	2.1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4) 특종보험(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 권원보험 등)에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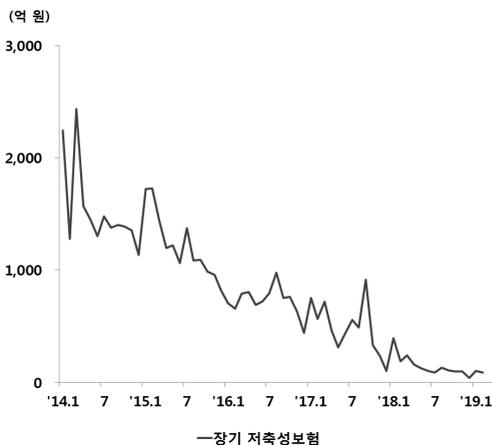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손해보험

■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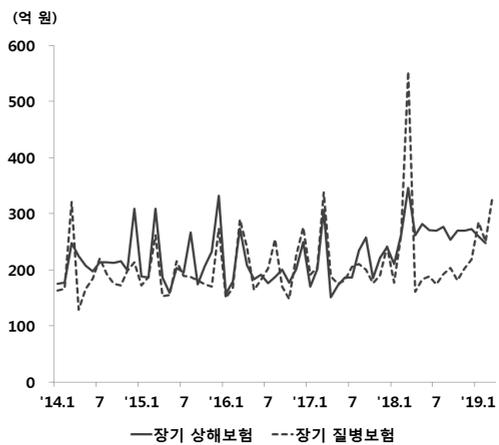
- 장기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요건 강화, 공시이율 하락과 보험회사 판매유인 저하 등이 지속되면서 6년 연속 감소세(-28.8%)를 보임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보다 각각 0.3%p, 1.3%p 상승한 8.7%, 11.6%를 기록함
 - 실손의료보험의 보유계약 증가 및 보험료 인상과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등 신상품 수요 확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그림 II-7**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8**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질병보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2019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7%로 상향 조정함
- 장기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8년보다 1.9%p 하락한 8.1%가 될 것으로 보임
 -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문재인 케어 정책 변화 가능성²¹⁾,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은 성장세를 제한할 수 있음

21)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판매 확대,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갱신주기 도래²²⁾ 등 원수보험료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8년 대비 0.1%p 하락한 -28.9%로 예상됨
 - 장기 저축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나, 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인 신규 판매 확대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기타장기손해보험²³⁾ 원수보험료는 장기운전자보험 증가세 둔화와 할인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재물보험 감소로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표 II-5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6		2017		2018		2019(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상해·질병	271,537	11.7	296,606	9.2	326,348	10.0	352,922	8.1	6.0
저축성	82,488	-21.2	63,263	-23.3	45,071	-28.8	32,049	-28.9	-28.6
기타 ²⁾	123,703	4.8	131,011	5.9	134,317	2.5	134,206	-0.1	2.6
합계	477,727	2.6	490,880	2.8	505,736	3.0	519,177	2.7	1.9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8년 개인연금²⁴⁾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0%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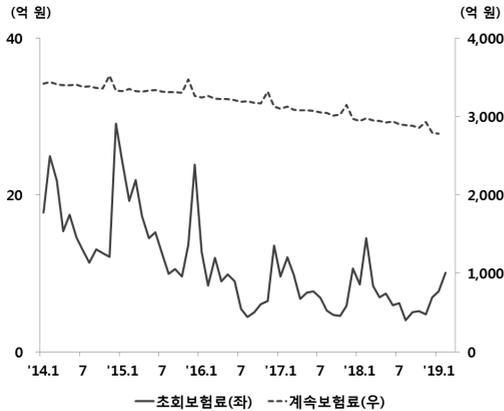
-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장기화,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상품 경쟁력 약화로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심화됨
-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 및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외적립비율 확대, 주식시장 하락세로 인한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감

22)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직전 표준화 이전 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바 있으며, 갱신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높아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함

23) 장기손해보험 가운데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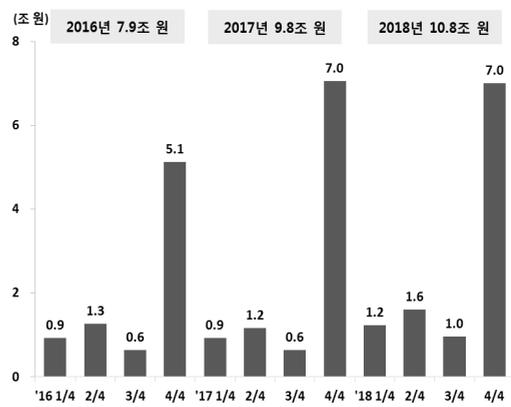
24)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상품을 연금저축이라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임

▶ **그림 II-9** 개인연금 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1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은 세제혜택 축소²⁵⁾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초회보험료 감소 추세가 계속됨
 -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고 있으나, 저금리 환경에서 세제혜택 이외의 뚜렷한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8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실적치를 반영하여, 2019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5.4%로 수정함

■ 2019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자본규제의 영향과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2018년보다 5.8%p 하락한 4.4%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5%에서 4.4%로 하향 조정함
- 타 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요구자본 부담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전략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퇴직연금 자산 비중이 큰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의 판매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다만,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확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대상 확대²⁶⁾가 원수보험료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5)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2015년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추가납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공제방식 전환은 세제혜택을 축소를 의미함; 정희수(2018. 5. 14), 「국내 연금시장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하나금융포커스』를 참조함

26) 2017년 7월부터 근로자에 국한되었던 가입대상이 1년 미만 재직근로자, 군인, 자영업자 등 거의 모든 소득근로자로 확대됨

▶ 표 II-6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6		2017		2018		2019(F) ¹⁾		기존전망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38,768	-3.6	37,007	-4.5	35,163	-5.0	33,269	-5.4	-5.0
퇴직연금 ²⁾	79,392	24.7	97,757	23.1	107,777	10.2	112,470	4.4	7.5
합계	118,160	13.7	134,764	14.1	142,940	6.1	145,740	2.0	4.4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3)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중 대형사를 제외한 퇴직연금 원수보험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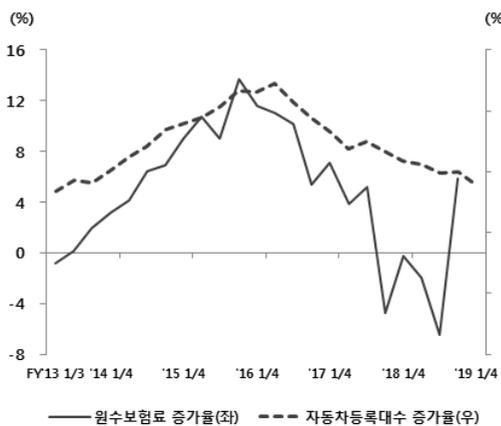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자동차보험

■ 2018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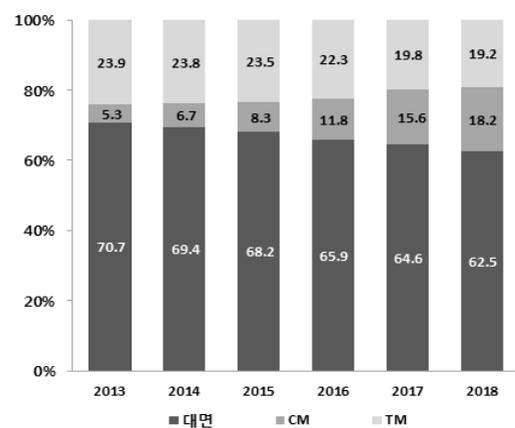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는 계속됨
- 또한 인터넷, 모바일 이용 확산 등에 따른 온라인보험의 판매 증가, 마일리지, 블랙박스 등의 할인 특약 확대 등으로 원수보험료의 증가폭은 축소됨

▶ 그림 II-11 원수보험료/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 그림 II-12 채널별 자동차보험 판매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요금 상향 조정과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1.5%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2018년 6월)²⁷⁾에 따른 정비요금 상향 조정,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 일용임금 인상,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됨
- 또한, 최근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약관 개정 논의로 인해 2019년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9년 4월 취업가능연한 상향,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외장부품 경미손상 보상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함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²⁸⁾가 자동차 원수보험료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 보험료 할인 특약의 가입 확대 및 전화, 인터넷 가입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는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2019년 하반기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확대될 경우 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

▶ 표 II-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6		2017		2018		2019(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자동차	164,053	9.4	168,573	2.8	167,202	-0.8	169,739	1.5	0.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6. 29),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적정 시간당 공임(25,383~34,385원) 공표-”

28)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됨(2018년 1~6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2018년 7~12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6. 5),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참조

마. 일반손해보험

■ 2018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나 보증보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6.3% 늘어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신규 수요 창출 부진, 손해율 안정에 따른 요율 인하 등으로 7.2% 감소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조선·해운업 경기 불황 장기화, 보험요율 재산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중금리대출 보증보험²⁹⁾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³⁰⁾ 등과 같은 신용보험시장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함
- 특종보험은 가입 의무화 확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증가세와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 성장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함
 - 2018년 1월 다중 이용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할인해주는 다양한 상품³¹⁾을 출시하고 있음

■ 2019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1.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실적치와 경기 둔화를 고려하여 2019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8.4%에서 4.9%로 하향 조정함
- 화재보험은 낮은 손해율로 인한 요율 인하 지속, 건설경기 둔화, 타 보험으로의 수요 분산³²⁾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4.6% 감소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 관련 보증보험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할부판매 보증보험, 중금리대출 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 신용보험 시장 확대로 전년 대비 6.0%의 증가가 전망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가 전망됨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5. 30), “'18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

30) 2017년 6월 20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보험가입이 용이해짐

31) 뉴데일리경제(2019. 1. 28), “대형 손보사, 재물종합보험 ‘소화설비 할인제도’ 확대”

32) 다수 보장을 제공하는 장기재물보험과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위험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음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³³⁾과 사이버보험³⁴⁾ 등 의무보험 확대,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³⁵⁾ 등 신규 수요 확대 요인이 존재함
- 다만, 경기 둔화 및 기업성보험의 가격경쟁 심화³⁶⁾는 기업성 특종보험의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표 II-8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6		2017		2018		2019(F) ¹⁾		기존전망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3,011	-1.0	2,965	-1.5	2,753	-7.2	2,579	-6.3	-0.6
해상	6,080	-14.3	6,437	5.9	5,950	-7.6	5,677	-4.6	1.0
보증	15,909	0.6	17,435	9.6	19,541	12.1	20,713	6.0	10.0
특종 ²⁾	60,032	5.4	62,279	3.7	66,526	6.8	70,419	5.9	9.0
합계	85,032	2.6	89,117	4.8	94,769	6.3	99,388	4.9	8.4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19년 6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손해와 관련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3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8. 14),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마련”

36)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2018. 11. 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저자약력

■ 총괄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 경제·금융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최예린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erinchoi@kiri.or.kr)

■ 보험산업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최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권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katie5022@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CEO Report 2019-0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발행일	2019년 7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3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